

'96 NAB에 참가한 국내 업체

최 성 진

서울산업대학 매체공학과·본학회 편집위원

국내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방송 기술분야의 일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일들 중에는 방송전문기술자의 운영을 위한 능력, 우수한 방송장비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와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재교육 및 능력있는 방송기술인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상당히 기술능력이 향상되어지고 있다. 후자를 위해 즉, 방송 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질 좋은 영상 및 오디오를 만들어 내는 방송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의 많은 방송장비 관련 업체들이 오랜기간 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여러업체에서 외국제품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장비를 개발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현업 기술인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질적 운영 장비에서 배타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외국제품과 성능비교를 할 수 있는 유명 외국 방송장비 전시회에 국내 제품들이 출품되지 못한 것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된다. 과거 일본 SONY사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국내 현업에서도 국내 제품을 적극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1996년 4월 1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방송기기 전시회인 NAB(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에 국내 방송장비 업체로는 처음으로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의 우수성을 외국에 홍보하는 2개 업체 컴픽스주식회사(대표: 김광성), 동서전자주식회사(대표: 장기선)를 소개하고자 한다.

컴픽스주식회사

1. 전시장비: 모델 PS-100인 VIDEO C.G.
(PC를 이용한 만국 공용 문자발생기)
2. 제품특성: 문자발생기는 방송이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덕션, 자체적인 비디오 제작물을 만드는 기업체, 관공서, 학교등에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문자처리장치(자막기)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는 한글에 국한되어 외국수출이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최대 문자발생기 제조업체인 Chyron회사가 PC에 장착하여

쓸 수 있는 문자발생기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나 이 장비 또한 영문(ROMA)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NAB에 출품된 이 제품은 제각기 문자가 다르고 방송방식(NTSC, PAL, SECAM)이 다른 외국의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는 PC의 윈도우상에 개발하여 각 나라의 전형폰트를 사용케 하고 하드웨어는 PC에 장착할 수 있도록 Add on Board로 개발하여 그 입력력을 방송이나 비디오장치에 연결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든 만국공용 문자발생장치이다.

동서전자주식회사

1. 전시장비: Audio Distribution Amp. 4종, Commentator, Telephone Multi Switcher Set, Audio Monitor, Up/Down Counter, Time Delay, A/V Monitor, Video Monitor, On Air Lamp, Portable Audio Mixer
2. 제품특성: 전시장비의 대부분은 국내 방송사와 관련 방송업계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는 기존 개발 장비들로서 국외에 선보여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방송기기들이다. 특히 A/V모니터 AVM-801은 이 회사가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여 최근에 자체 개발한 장비로서 8채널 합성 비디오/오디오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며 5인치 TFT LCD 모니터를 통해 비디오 신호를 검색하는 동시에 오디오 신호의 이상유무를 스피커와 오디오 레벨미터의 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매력적인 우수 장비이다. 또한 모니터 모니터 DVM-203은 3개의 고해상도 5인치 TFT LCD 모니터를 이용하여 동시에 3개 화면의 비디오 신호와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NTSC, PAL, SECAM의 방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